

[ 북 스 ]

# 삶을 걸작으로 승화시키는 기술

## 어린이 책꽂이



▲봄이 오면=한자영씨가 쓰고 그린 책. 파사롭고 한가로운 봄의 풍경을 화사한 색감의 그림으로 진한다. 봄 햇살에 취해 '구백구백' 조는 엄마와 아기, 뜰에서 놀다 '샤르르르' 잠든 아이와 할아버지, '쿨쿨쿨' 조는 오리 가족과 무당벌레 등 마치 누가 와서 '잠 깨우'를 뿌린 듯 나른한 봄 풍경을 담았다. (세계적·9천500원)



▲엄마 아빠, 싸우지 마세요=아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가. 어둠도, 도깨비도, 호랑이도 아니다. 바로 부모의 부부 싸움이다. 책은 부모의 돌발적인 싸움으로 당혹해하던 여섯 살짜리 꼬마 톨이 사랑하는 사이라 해도 가끔은 서로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가는 과정을 담았다. (경독·9천원)



▲오렌지 소스=일본 작가 우오즈미 나오코의 코랄 정한 아동소설. 전학을 온 유리는 잘난 척하는 아이로 오해를 받아 반에서 따돌림 당한다. 미사키는 유리의 속마음을 알게 되면서 유리와 친구가 되고 싶다. 하지만 다른 아이의 시선이 두려워 실패를 내지 못하는 데..... (크레용하우스·7천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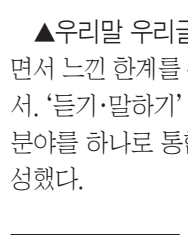
▲신나고 즐거운 생체체험 이야기=주말농장에서 여러식물을 심고 가꾸면서 얻어지는 자연이 주는 생활의 지혜와 느낌을 일기형식으로 풀어냈다. 우리가 날마다 먹는 채소들의 이름부터 그 채소들이 작은 씨앗에서 싹이 나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과정을 사진과 함께 실었다. (도서출판 박물관·8천9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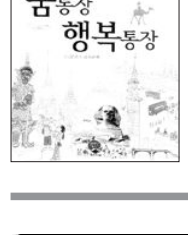
▲얼굴이 빨개졌다=작가 이상교씨의 두번째 동화집. 외톨이 시우에게 어느날 멋진 '오빠'가 나타난다. 시우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네며 악수를 청하자 급세 얼굴이 빨개져서는 쪼아주고 온 복숭아 꽃가지를 놓아두고 달아나는 시우를 상상하면 어린 날 한번쯤 겪었을 법한 아련한 풋사랑이 떠오른다. (국민서관·8천500원)



▲수도물이 뚝!=물이란 신기한 주전자 속 여행을 통해 물에 관한 5가지 이야기를 담았다. 생활에서 물이 어떻게 쓰이는지, 물은 지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물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 물을 왜 아껴 써야 하는지, 맑은 물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관자녀 동화로 엮었다. (파란자전거·8천900원)



▲우리말 우리글=현직 교사들이 국경교과서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한계를 뛰어넘고자 만든 초등학교 1학년용 대안 국어교과서.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로 나누어진 국경교과서와는 달리 내용을 하나로 통합해 아이들의 지식발달에 맞게 내용을 새롭게 구성했다. (나리마을아이들·1만5천원)



▲꿈동산 행복동장=여행은 슈퍼맨이 되는 것. 남획과 오염의 지구를 한바퀴 도는 '지구마을' 여행을 통해 진정한 여행의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다. '작은 아이의 세계여행'이라는 제목 이야기를 다시 꾸민 것이다. (영원카디널·9천원)

## 일상, 그 매력적인 예술

에릭 부스 지음



“모든 아이는 예술가다. 단지 어른이 되면서 그 자질을 잃어버릴 뿐이다”라는 피카소의 말처럼 예술이란 몇몇 천재들의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행동에 몰입하여 깨임을 느끼는 인간의 본성이라 할 수 있다. 연극배우이자 줄리아드 음악원에서 예술교육학을 가르치고 있는 에릭 부스가 쓴 '일상, 그 매력적인 예술'은 저자가 예술가들에게서 찾은 창조적 삶의 기술을 독자에게 안내하는 일종의 '인생 안내서'이다. 저자는 "예술이라는 단어는 본래 명사가 아니라 '잘 맞추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어원상 행위의 '결과물'이 아니라 '행위'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위대한 예술가들의 창조 행위 과정을 밝혀내 이를 일상에 적용하면 평범한 삶을 위대한 작품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저자는 열망, 관찰, 비유, 문제의 재구성, 적극적인 참여 등 예술 걸작을 만들어내는 5가지 기술을 탐구하고 훈련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저자가 창조성의 원천으로 가장 먼저 제시한 '열망'은 새로운 것에 반응해 그 안에 담긴 진실한 가치를 찾아내어 세상과 관계를 맺게 해주는 힘이다. 예술 작품은 낯선 사물 앞에서 발하는 호기심과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려는 강렬한 욕망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 자각과 뒤를 모두 살피고, 끌리는 대로 끌려가며 관찰하되 심부름 판단이나 해석을 하지 않고 순수하게 관찰하면



인간은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라도 자신의 삶을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 빈센트 반 고흐 작 '아름다운 반 고흐의 방'

평범한 것들에서 비범함을 얻게 된다"고 말한다. 카프카의 말처럼 "식탁에 앉아 귀를 열고 기다리면 세상이 가까이 당신에게 다가가 버려졌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저자는 "예술가들은 상징, 은유, 상상력을 통해 사물들 간의 고리를 찾아내어 귀를 열고 기다리면 세상이 가까이 당신에게 다가가 버려졌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예코의시제·1만5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대표작가 21명의 솔직한 삶

### 나는 오직 글 쓰고 ...

원재훈 지음



작가는 '작품'으로 말한다 하지만 독자들은 그들의 '속내'가 궁금하다. 시인 원재훈이 펴낸 '나는 오직 글 쓰고'는 '책 읽는 동안만 행복했다'는 우리 시대 대표작가 21명의 삶을 들여다본 책이다. 책에 등장하는 이들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작가'라는 신분 덕에 저자는 문인들과 대화를 통해 깊은 이야기를 끌어냈다. 더 불어 뛰어난 필력을 겸한 터라 작가 한명 한명과의 모습과 이야기는 잘 짜여진 산문으로 완성됐다. 저자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 특히 그들이 펴낸 다양한 책을 오랫동안 섭렵한 내용을 통해 그들의 어린 시절과 성장 과정, 작가 되기 까지의, 작품 이야기, 글쓰기의 행복과 고뇌, 그리고 사랑과 이별 등 일상까지도 잘 포착해냈다. 동인문학상 등 최근 대부분의 문학상을 휩쓴 소설가 김연수는 고향 친구 문태준과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원벽주의자 노시인 정현준, 내는 책마다 베스트셀러를 기록하는 공저자를 만날 수 있고 전경린·구효선·김선우·김인숙·김영경·성석재·윤우명·윤대영·김용택·문태준·박상우·신경숙·정호승까지 현재 가장 주목받는 문인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예담·1만5천원) /김대성기자 mekim@kwangju.co.kr

## 사랑의 6가지 '빛과 그림자'

### 다른 남자

베른 하르트 슬링크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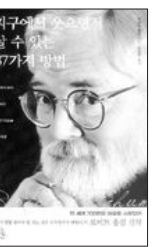


'더 리더-책 읽어주는 남자'의 작가 베른 하르트 슬링크는 작품마다 각 캐릭터의 면면을 진솔하게 보여주는 탁월한 이야기 구상력과 인간에 대한 도덕적 암시를 내포하면서도 간결한 문체로 정평이 나 있다. 그의 중·단편 모음집 '다른 남자'가 나왔다. 책에는 부자, 부부, 친구 등 우리 일상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 속에서 발견되는 '사랑의 빛과 그림자'가 매우 간결하고 치밀한 어조로 그려졌다. 연민, 어긋남, 질투, 자기적인 열정, 근원적인 그로움, 낯설음 등 슬링크의 프리즘에 포착된 사랑의 여섯 가지 빛과 그림자를 한데 엮었다. 죽은 아내가 숨겨두었던 애인이 아내 앞으로 보낸 편지를 받고 질투심을 느끼고, 아내의 옛 애인을 만나 이야기하는 가운데 자신의 과거를 깨닫는 남자를 절묘하게 그려낸 일상적 삶의 허구성을 짚어낸 표제작 '다른 남자'와 2차 대전 중 아버지가 유대인들에게 범한 죄를 알게 된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 현재 독일의 아버지 세대에 대한 고통을 수 없는 연민의 정을 나타낸 '소녀와 도마뱀' 등 6편이 실렸다. 이번 역시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해 감성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환원, 관계와 소통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슬링크만의 탁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레·1만2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일상이 가져다 준 행복의 의미

### 지구에서 웃으면서 ...

로버트 풀검 지음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의 저자 로버트 풀검이 2007년에 낸 에세이집 '지구에서 웃으면서 살 수 있는 87가지 방법'이 번역돼 나왔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과 유타주, 그리스의 크레타섬을 오가며 사는 저자가 그곳에서 겪은 소소한 사건들 속에서 깨달은 지혜와 일상의 행복을 이야기한 87편의 에세이를 담고 있다. 책에는 풀검이 무엇을 했고,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고, 풀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밝히는 글들이 대부분이다. 저자는 여행을 하면서 뜻밖의 것에서 기쁨을 맛보았다. 큰 토끼로 변장하고 손자와 할머니 파티에 가고, 11월 중순에 꽃이 활짝 핀 수선화를 만나고, 우주에서 지구를 보는 상상을 하고, 사막에서 신비한 밤의 소리를 듣고, 밤을 새워가며 그리스의 부활절 축제에 참가하고,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과 잊지 못할 우정을 맺기도 한다. 저자는 "다양한 직업을 거치고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겪은 소소한 사건들을 통해, 일상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았으며 매일 매일이 가져다주는 행복을 가까이 받아들이고자 하였고, 그래서 그것을 찾고 있었다"고 쓰고 있다. (랜덤하우스·1만1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주)국민법률경매 광주, 전남지역 경매 062)364-8700 010-4608-3700 경·공매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강영희

Table with 5 columns: 지역/시/군, 소재지, 면적, 감정가, 최저가. Lists various properties for auction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Gwangju, Gyeonggi-do, and Seoul.

Table with 5 columns: 지역/시/군, 소재지, 면적, 감정가, 최저가. Continues the list of properties for auction.

Table with 5 columns: 지역/시/군, 소재지, 면적, 감정가, 최저가. Continues the list of properties for auction.

Table with 5 columns: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Lists specific land and building auction details.

• 권리분석·현장답사·입찰대행·나찰(잔금부족시 최저금리 대출알선)시 최저금리 대출알선(잔금부족시)·평도(이사)